물길 끊긴 광주 운천·양산저수지

난개발로 수량 격감 … 극락·황룡강서 유지용수 끌어오기로

물 순환체계·수자원 보전 대책 시급

광주천에 이어 광주의 5대 저수지로 꼽히는 운천저수지와 양산저수지가 극락강이나 황룡강에서 유지용수를 끌어 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주변 난개발로 인해 저수지로 흘러드는 물길이 끊겨 저수지가 메마르고, 수질 오염도 심각해진 탓이다.

이에 따라 도시 내 각종 개발에 앞서 광주지역 수자원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물 순환체계 수립을 통해 이 같은 도심 내 하천이나 저수지의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천에 매년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10만t의 유지용수를 기존 4만3천300t에 더해 증심사천과 원지교, 교동교 등에서 흘려보내기로 한 데 이어 운천저수지와 양산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각각 극락강 지하수와 OB맥주 광주공장이 사용하고 있는 황룡강 물 일부를 끌어들이기로 했다.

운천저수지의 경우 주변 아파트 개발로 인해 고립되면서 유입수가 줄어 악취와 오염으로 공원 기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9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3.65km의 송수관로를 설치, 극락강 지하수를 유입시키기로 한 것이다.

또 양산저수지 역시 광산구 본촌동의 OB맥주 광주공장 공업용수 중 매달 1천t을 끌어들여 수질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저수지는 자연유입수가 전혀 없어 부영양화와 그로 인한 악취, 오염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무엇보다 급한 것은 저수지의 수질개선이며, 이를 위해 일부 시설설치나 관리에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외부로부터 깨끗한 물을 들여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광주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천이나 실개천, 저수지, 호수 등 도심 물 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물 순환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으로 예산을 들여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 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대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는 "도심의 숲이나 야산 등으로부터 자연적인 물 유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이 같은 물 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도심 내 물 자원은 환경, 여가, 삶의 질 등 도시 수준과도 직결돼 있는 만큼 수자원 보존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주변 아파트 개발 등으로 인해 유입수가 크게 줄어든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광주시는 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 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송수관로를 설치, 극락강 물을 끌어올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빵소니 희생된 초등생 담양 야산서 시신 수습

경찰, 운전자 영장

실종 신고된 초등학생을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북부경찰은 광주 모 초교 4년 J(10)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담양군 남면 만월리 인근 야산 일대에서 경찰 인력 150명을 동원,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시신 일체를 수습했다.

경찰은 지난 9일 검거된 운전자 이모(48)씨의 진술을 토대로 담양군 창평면 일대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왔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씨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변경된 장소로 수색대를 급파해 J군의 시신을 찾아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C아파트 인근 앞길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J군을 치어 숨지게 한 뒤 J군의 시신을 사고 현장에서 20㎞ 떨어진 이 곳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J군은 지난 4일 "체육관에 다녀 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돼 부모에 의해 실종신고됐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술에 수면제 타 먹이고 상습 절도

노래방 '2인조 꽃뱀'에 실형

노래방에서 알게 된 손님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절도 행각을 벌인 '꽃뱀' 2인조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11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들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송모(여·50)씨와 이모(여·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2천만원이 넘는 거액이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과다복용 시 생명에 위험을 가져오는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광주시 북구 모 식당에서 김모(66)씨의 술잔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뒤 현금 40만원을 훔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고 훔친 카드로 1천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면세유 불법유통 9명 입건

완도해양경찰은 11일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한 A(34)씨 등 9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면세유 7만1천여ℓ(시가 1억1천만원 상당)를 허위로 공급받은 뒤 차량이나 난방용 기름으로 사용하거나 화물차 운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부부싸움 빌라 태운 20대 부부 징역형

광주지법 "이웃 주민 상해 입혀 엄벌"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담뱃불과 화장지 등을 이용해 빌라에 불을 지른 20대 부부에 대해 법원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11일 부부싸움 중 불을 질러 빌라를 태우고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김씨의 아내(28)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로 인해 2천9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났고 방화시각이 빌라에 사는 17가구 구성원들이 대부분 귀가했을 밤이어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고, 실제 일부 주민들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남편이 범행을 주도하고 아내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 4월 16일 밤 10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원룸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불을 질러 3층 건물로 번지게 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편은 홧김에 담뱃불을 내던지고 아내는 휴지로 불을 붙여 이불에 올려 놓는 등 고의로 불을 낸 뒤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함께 건물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행인 매달고 1㎞ 도주 20대 만취운전자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1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행인 2명을 친 뒤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유모(2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새벽 2시35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M마트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던 중 성모(20)·홍모(20)씨 등 2명을 친 뒤 성씨를 차에 매단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환자 탈출' 정신병원에 보완조치 명령

광주 남구보건소

정신과 병원에서 남녀 환자 2명이 직원을 폭행한 뒤 흉기를 든 채 도심을 누비다 경찰에 붙잡힌〈광주일보 6월 8일자 6면〉 사건과 관련, 감독기관인 광주시 남구보건소는 해당 병원 측에 보완조치를 내렸다.

광주시 남구는 지난 8일 사건이 발생한 광주 C재활병원을 방문조사한 뒤 위해 물품 관리와 환자 탈주방지 대책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남구는 22~26일 '정기 정신보건시설 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병원 측은 위해물품 관리와 탈주방지 대책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인력보강을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으며, 문제를 일으킨 환자들을 서둘러 퇴원조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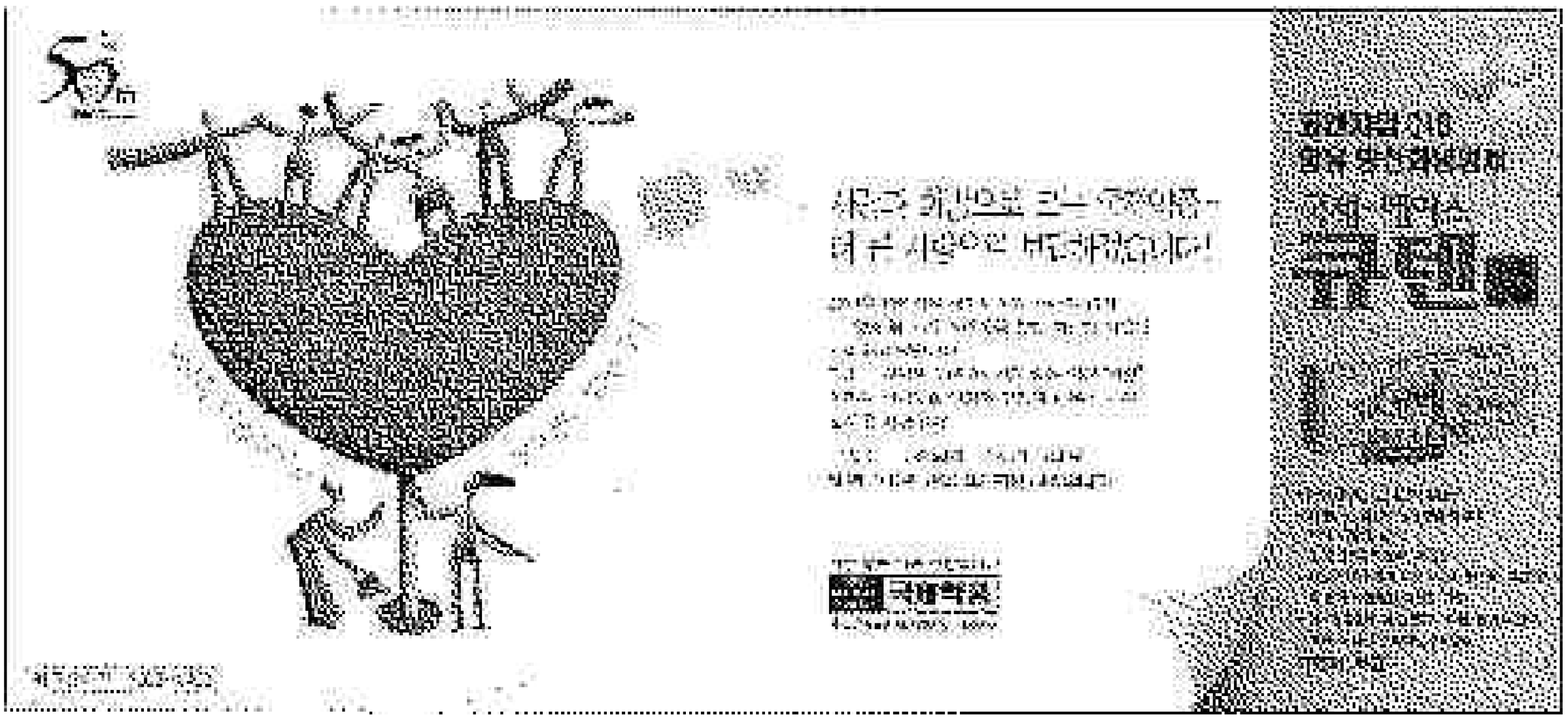
한편 남구가 CCTV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남자 환자 1명이 밀걸레 자루로 5분여에 걸쳐 수십차례 직원을 폭행했으며, 탈출 환자들이 사용한 밀걸레 자루는 샤워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

"오빠 맞죠?" 문자 사기 17억 챙겨

쌍나팔

○…지인을 가장한 스팸 문자(속칭 '낚시 문자')를 전국에 발송해 17억원을 챙긴 사기범이 검거돼 피해자들이 '분통'.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모바일 콘텐츠업체 4곳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휴대전화 소액결재 대금을 받아 챙긴 정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정씨는 2006년 9월부터 '전화번호 준 오빠 맞죠? 사진 보고 맞으면 문자 줘요' 등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기 문자'를 55만 차례에 걸쳐 보내 17억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 관계자는 "3천원 미만의 소액 결제는 이용자 확인 없이 결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특히 청구서를 유심히 살피지 않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넘어갔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